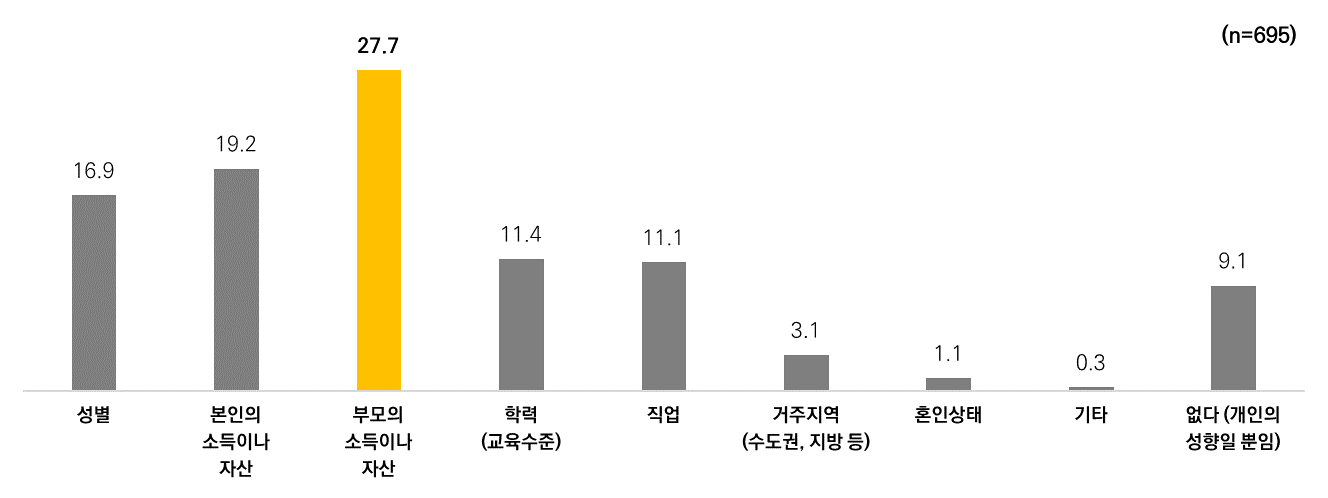
|  |  |
| --- | --- |
|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2023. 1. 14.**  **보도자료** |
| **󰂕 0723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6F**  **☎02-785-9564 Fax02-785-9565 이메일**[**sti9564@gmail.com**](mailto:sti9564@gmail.com)**홈페이지**[**https://goodsti.com**](https://goodsti.com/) | |
|  | |

20대 46.9%, ‘사회적 인식은 빈부에 따라 갈린다’

사회적 인식 달라지는 가장 큰 기준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2022년 12월,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는 ‘한겨레신문사’의 의뢰로 20대 청년 695명을 대상으로 정치·사회 분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들에게 ‘20대의 사회적 인식’이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부모의 경제 수준을 첫번째로 꼽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 (19.2%), ‘성별’(16.9%), ‘학력(교육수준)’(11.4%), ‘직업’(11.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27.7%)’ 및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19.2%)’이라고 응답한 46.9%는 결국 사회적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빈부 격차로 지목한 것이다. 특히 본인의 경제적 수준 보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 점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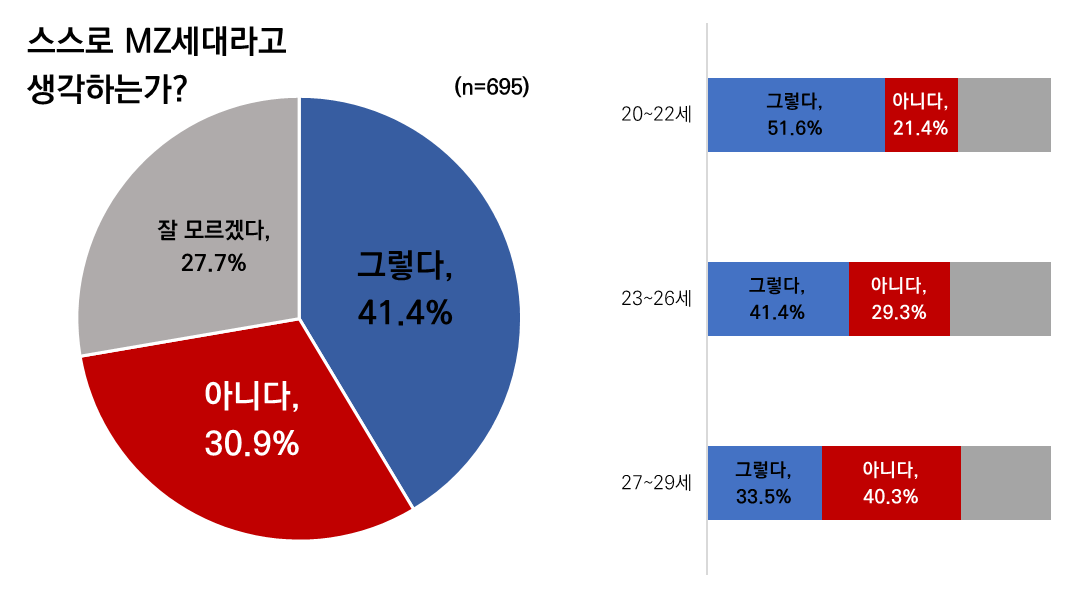
20대 50.9% “MZ세대론, 20대를 마음대로 규정하므로 부정적”

20대 30.9%, ‘자신은 MZ세대 아니다’

그렇다면 20대들은, 자신들을 지칭하는 ‘MZ세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를 MZ세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0.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7%였고, ‘그렇다’는 응답은 41.4%로 절반이 넘지 않았다. 20대 초반(20~22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1.6%로 과반이었지만, 20대 중반(23~26세) 41.4%, 20대 후반(27~29세) 33.5%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0대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엄밀한 구분은 어렵지만 대체로 학계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Z세대는 1995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로 구분한다. 본 조사에는 1993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참여하였다. 앞서 결과에 따르면 같은 세대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반대가 많았고 Z세대는 찬성이 많았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동질감(혹은 구분감)이 일정하게 달랐다는 의미다.



‘MZ세대’라는 말에 긍정적 느낌을 받는지, 부정적 느낌을 받는지 물었을 때에는 ‘긍정적 느낌도, 부정적 느낌도 없다’가 48.6%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정적 느낌’이라는 응답이 38.4%로, ‘긍정적 느낌’이라는 응답(12.9%)보다 많았다. 특히 자신이 MZ세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들에게서는 ‘부정적이다’ 라는 응답이 56.4%로 더 높았다. ‘MZ세대론’이란 담론 자체에 대한 평가가 특히 눈길을 끈다. ‘MZ세대론’이 ‘20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보여 긍정적’인지, ‘20대를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지 물었을 때, ‘부정적’이 50.9%로 과반을 넘겼다.

‘사회계층 이동가능성’, 남 40.4%인데 여 28.5%에 불과

‘앞날에 대한 희망 있다’, 평균 36.7%에 그쳐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계층 이동가능성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자신의 인식’, ‘20대의 인식’, ‘다른 세대가 생각하는 20대’으로 각각 나누어 물었다. 먼저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하여 남녀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남성 40.4%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여성은 28.5%에 불과하였다. 사회계층 이동가능성의 젠더 격차가 향후에도 이어질지, 그럴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인식은 36.7%에 그쳤다. 남성 39.2%, 여성 33.9%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남성이 앞섰다. 스스로의 앞날에 대한 희망이 세 명 중에 한 명 뿐이라는 사실 역시 꾸준한 관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사전에 진행한 20대 그룹 인터뷰를 통해 ‘20대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는 명제’ 13가지를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평가’, ‘20대에 대한 나의 평가’, 또 ‘다른 세대의 20대 인식에 대한 나의 평가’를 각각 물었다.

|  |
| --- |
| 다음 각 문장들을 읽으시고, 1) 본인이 해당되는지, 2) 본인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내 주변을 비롯한 20대가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3)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사회에서 다른 세대들이 20대를 아래와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 | 나는 해당된다 | 20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 다른 세대들이  20대를 이렇게 생각한다 |
| 1) 옳은 일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지, 되지 않는지 따져보고 움직이는 편이다 | 3.5 | 3.6 | 3.8 |
| 2) 평소 생활에서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 해결하고자 한다 | 3.7 | 3.5 | 3.6 |
| 3) 사회적 공정의 이슈에 민감하다 | 3.4 | 3.6 | 3.6 |
| 4) 도전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 3.0 | 3.3 | 3.2 |
| 5)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꺼려진다 | 3.4 | 3.7 | 3.8 |
| 6) 주변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표현한다 | 3.0 | 3.8 | 3.9 |
| 7) 투명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3.6 | 3.6 | 3.6 |
| 8) 대화보다는 문자메시지(메신저 포함) 등으로 소통하는 것이 편하다 | 3.4 | 3.8 | 4.0 |
| 9)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 3.3 | 3.9 | 4.0 |
| 10)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약한 편이다 | 2.6 | 3.3 | 3.7 |
| 11) 싫어하는 국가, 단체 등 특정한 사회적 집단이 있다. | 3.2 | 3.5 | 3.6 |
| 12) 같은 세대내 성별 갈등이 큰 편이다 | 3.0 | 3.7 | 3.8 |
| 13) 문해력이 높지 않다 | 2.5 | 3.3 | 3.6 |
| 14)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아실현, 경제적 성공, 사회적 성공 등) | 3.1 | 3.0 | 3.0 |
| 15)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1 | 2.9 | 3.0 |

**‘나는 그렇지 않은데, 20대 전반은 그렇다’**

‘자신의 인식’(나에 대한 평가)과 ‘20대의 인식’(20대에 대한 나의 평가)의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큰 명제(0.6점 이상)들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문해력이 높지 않다 (자신 2.5 vs 20대 3.3)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자신 3.0 vs 20대 3.8)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약한 편이다 (자신 2.6 vs 20대 3.3)  같은 세대내 성별 갈등이 강한 편이다 (자신 3.0 vs 20대 3.7)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자신 3.3 vs 20대 3.9) |

이상의 명제 중에서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를 제외한 명제들은 다른 명제에 비추어 부정적(negative) 명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인지적 편향의 한 종류인 ‘우월성 편향(better-than-average bias)’에서 비롯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정적 측면에서 평균 보다 낮다고 평가하는 속성으로서 ‘평균 이상 효과(above average effect)’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만, 우월성 편향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뚜렷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20대들이 느끼는 것 보다 사회가 과하게 인식하고 있다’**

‘20대의 인식’(20대에 대한 나의 평가)과 ‘다른 세대가 생각하는 20대’(다른 세대의 20대 인식에 대한 나의 평가)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명제는 다음과 같다.

|  |
| ---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약한 편이다 (20대 3.3 vs 다른 세대 3.7)  문해력이 높지 않다 (20대 3.3 vs 다른 세대 3.6) |

이상의 명제는 20대 스스로가 세대간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세대간 갈등 배경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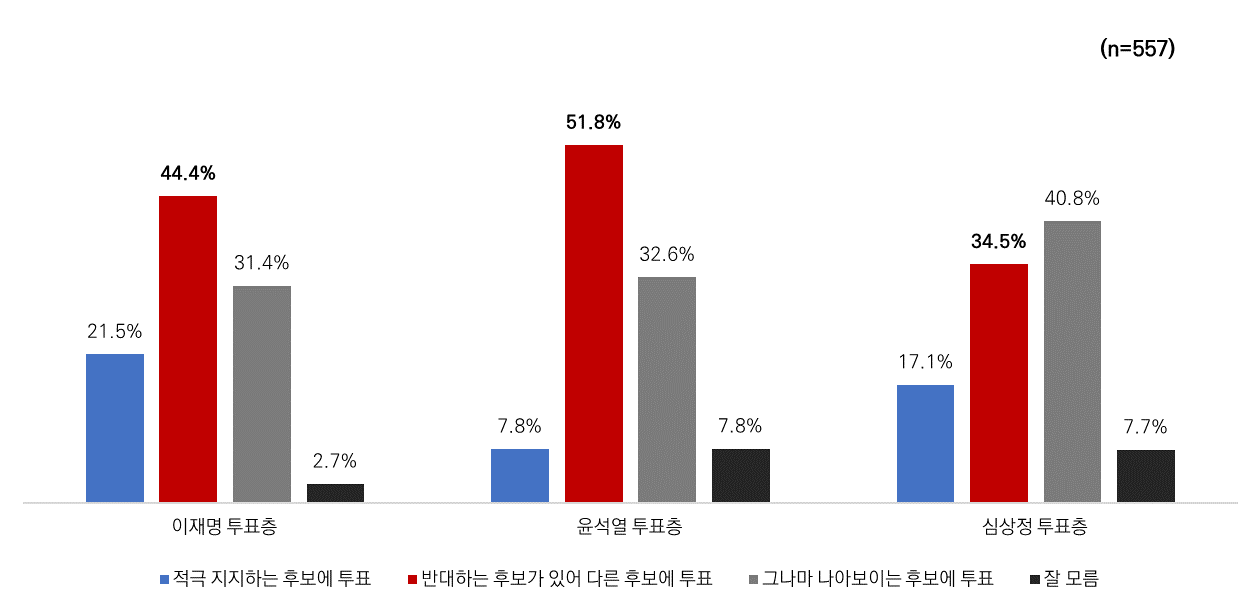
윤 투표자 둘 중 하나 등돌려, 하지만 그 중 70%는 "후회하지만, 찍을 후보 없었다"

20대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어떻게 투표하였고,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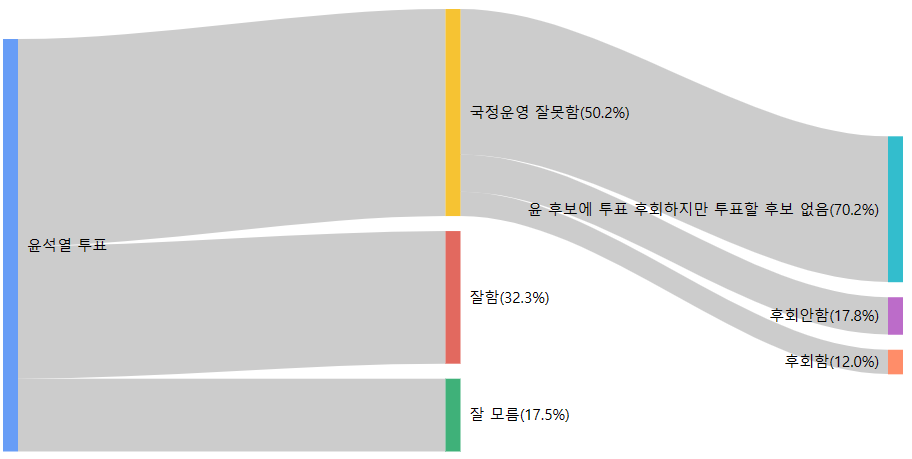
지난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과 여성의 투표 경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 이슈가 되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남성은 50.0%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 여성은 43.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각 후보 투표층들에게 본인이 해당 후보에 투표한 이유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 물어보았을 때, 윤석열 후보 투표층에서는 ‘당선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들)가 있어서,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극 지지해서 투표했다는 응답은 7.8%로 다른 후보 투표층에 비해 낮았다.

윤후보 투표층에 비해 정도는 덜했지만,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투표층에서도 ‘적극 지지해서 투표’했다는 응답이 10~20%대로 낮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윤후보 투표층 중 50.2%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윤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후회하느냐고 물어보자, 70.2%가 ‘후회하지만, 투표할 후보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즉, 이들에겐 윤후보가 아니라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대안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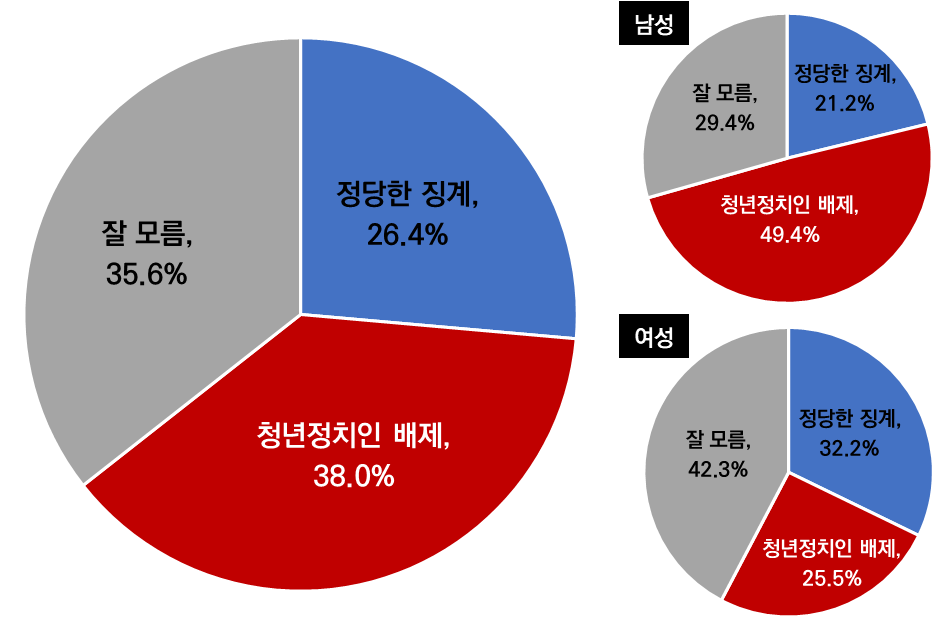
**주요 청년정치인, 모두 감정온도 50점 미만**

**‘이준석 징계는 청년 정치인 배제’, 남 49.4% 여 25.5%**

주요 대선후보였던 현 대통령과, 현 야당 대표 모두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20대가 기대를 거는 정치인은 누굴까? 청년 정치인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당의 대표적 청년정치인들에 대한 감정을 감정온도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감정온도계란, 정치인, 정당 등에 대한 유권자의 호불호 감정을 0도(아주 싫어한다) ~ 100도(아주 좋아한다)까지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이준석(44.8), 더불어민주당 박지현(39.0), 정의당 장혜영(39.5) 셋 모두 50점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남성에서 감정온도가 53.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여성 34.7)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이 청년정치인을 정치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응답이 38.0%,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이다’는 응답이 26.4%였다. (잘 모르겠다, 35.6%) 남성에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이 청년정치인을 정치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응답이 49.4%로 거의 절반에 달했으나, 여성에서는 25.5%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잘 못하고 있다’ 70.2%

부정 평가 계기, ‘이태원 참사 대처’ – ‘자질/능력’ – ‘언행’

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0.2%(매우 잘 못함 38.6%+ 잘 못하는 편 31.5%)였고,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16.1%(매우 잘 함 2.6% + 잘 하는 편 13.4%)였다. 부정 평가는 여성(77.3%)에서 남성(63.6%)보다 높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 계기나 이유로는 ‘이태원 참사 대처’, ‘자질과 능력’, ‘언행’, ‘대통령실 이전’,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의 순으로 많이 거론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분야와 이슈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평가가 가장 낮은 분야는 ‘민생 안정’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내각 및 참모인사’였다. 이슈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가장 평가가 낮았다. 모든 분야, 이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성 ‘외적 정치 효능감’↑, 남성 ‘내적 정치 효능감’↓**

**‘외적 정치 효능감’, 중도 > 보수 > 진보**

**여성/진보/국정운영 부정평가층, ‘내적 정치 효능감’↑ ‘외적 정치 효능감’↓**

20대들의 정치효능감은 어떨까?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 정치효능감은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효능감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며, 외적 효능감은 정치체계(의회, 정당, 행정부, 관료, 의원)들이 시민들의 참여에 응답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을 1~4점으로 측정한 결과 20대들의 내적 효능감은 중앙값(2.5점)에 가까운 2.52점, 외적 효능감은 이에 못 미치는 2.2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내적 효능감은 높지만 외적 효능감은 낮았다.

주관적 정치이념별로는 보수층은 진보층보다 내적 효능감은 낮지만 외적 효능감은 좀 더 높았다. 외적 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은 중도층이었다. 팽팽한 양당 구도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 지선이 결국 중도층 확보를 위한 대결이었다는 환경적 특성의 반영으로 추론된다.

윤석열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은 부정평가층보다 외적 효능감은 높고 내적 효능감은 낮았다. 학력이 낮을 수록 외적 효능감은 낮았다. 내적 효능감은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내적효능감은 높은데, 외적효능감이 낮은 계층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의견, 행동에 정치체계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만이 더 쌓여갈 수 있다. 위 분석에서 보면 20대 여성, 진보층, 윤석열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이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 소폭 변화, 향후 변화 추이 관심

지난 정부에 비해 ‘불공정해졌다’ 39.1%

이번 조사는 2021년 에스티아이가 진행한 ‘20대 능력주의 보고서’(한겨레 2021.12.11.)의 후속 조사 격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능력주의의 현실과 관련한 질문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더 안좋아졌다. 능력주의의 한 요소인 ‘경쟁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년 조사 66.7%에서 이번 조사 74.5%로 증가했다.

또, 능력주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오차범위내이긴 하지만 소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경쟁의 결과에 따른 지나친 격차는 지양해야 한다’(55.2% → 60.7%),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리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57.9% → 60.9%)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였다.

|  |
| --- |
| 배경이나 재능 등 개개인이 타고난 조건이 달라 기회와 과정에서 완벽한 공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쟁의 결과에 따라 지나친 격차가 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례수 | 전혀동의안함 | 별로동의안함 | 보통 | 어느정도동의 | 매우동의 | 동의안함 | 동의 | 평균 |
| (1) | (2) | (3) | (4) | (5) | (1+2) | (4+5) |
| 2021년 9월 | (520) | 1.3 | 13.3 | 30.2 | 40.0 | 15.2 | 14.6 | 55.2 | 3.5 |
| 2022년 12월 | (695) | 1.3 | 9.9 | 28.1 | 42.5 | 18.2 | 11.2 | 60.7 | 3.7 |

|  |
| --- |
| 기회와 과정의 공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리’(다양한 제도들)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례수 | 전혀동의안함 | 별로동의안함 | 보통 | 어느정도동의 | 매우동의 | 동의안함 | 동의 | 평균 |
| (1) | (2) | (3) | (4) | (5) | (1+2) | (4+5) |
| 2021년 9월 | (520) | 1.8 | 10.0 | 30.3 | 44.2 | 13.6 | 11.8 | 57.9 | 3.6 |
| 2022년 12월 | (695) | 1.5 | 7.7 | 29.8 | 45.0 | 16.0 | 9.2 | 60.9 | 3.7 |

동일한 문제지, 기준으로 보는 ‘시험’이 경쟁에서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29.3% → 3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례수 | 시험이  가장공정 |  |  | 공정하지  않음 |  |  | 평균 |
| (1) | (2) | (3) | (4) | (1+2) | (3+4) |
| 2021년 9월 | (520) | 23.2 | 47.5 | 17.3 | 12.0 | 70.7 | 29.3 | 2.2 |
| 2022년 12월 | (695) | 17.2 | 48.6 | 24.0 | 10.3 | 65.7 | 34.3 | 2.3 |

비록 큰 변화는 아니지만 향후 능력주의에 대한 20대들의 인식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에서 사회가 더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에는, ‘불공정해 졌다’는 응답이 39.1%(훨씬 불공정 16.3% + 불공정 22.8%), 공정해졌다는 응답이 13.9%(훨씬 공정 3.2% + 공정 10.7%), 똑같다는 응답이 47.0%였다.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은 ‘사이버 공간’

20대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안전하다’는 응답이 49.9%(‘매우 안전’ 9.3% + ‘대체로 안전’ 40.6%),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15.6%(‘별로 안전하지 않음’ 13.0% + ‘전혀 안전하지 않음’ 2.7%)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4.5%였다. 성별에 따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컸는데, 남성은 59.6%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에서는 39.2%에 불과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범죄, 사이버 범죄, 전쟁,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본인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정부의 대응 능력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였다.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도 ‘사이버 범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76.5%(‘매우 부족’ 37.6% + ‘부족’ 38.9%)였다.

|  |  |  |
| --- | --- | --- |
|  | 안전한 정도 (1~5점) | 정부의 대응 능력 (1~5점) |
| 자연재난 | 3.38 | 2.63 |
| 사회재난 | 3.23 | 2.53 |
| 생활안전 | 3.15 | 2.61 |
| 폭행,절도,살인, 강간 등의 범죄 | 3.13 | 2.42 |
| 사이버 범죄 | 2.67 | 2.26 |
| 전쟁 | 3.08 | 2.73 |
| 감염병, 질병 | 2.85 | 2.73 |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  |
| --- |
| 이번 조사는 20대의 정치사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겨레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 만 20~29세 남녀 온라인 패널 중 695명이 참여하였다. 20대들의 가치관, 정치현안, 정부 평가, 정당 호감도, 안전, MZ세대론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였다.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3.7%포인트, 응답률은 3.8%. |